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Kimin An 안기민 사도요한 (510) 562-3843 email : joannesan2011@gmail.com 사목회장 정일양 안드레아 (오일공)육철이-삼구구육 email : iychung53@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목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오일공)팔사칠-삼공일사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11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신청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주일 오전 9시 반 ~ 10시 반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예비자교리	매주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향심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15분 온라인
	지속적인성체조배	일시 정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1시 반 온라인

< 연중 제 14주일 7월 4일 미사 전례 >

[제 1독서] 예제 2,2-5

[화 답 송] 시편 123(122), 1-2, 7, 2, 4, 5, 3-4(◎ 2, 4)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멀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멀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 2독서] 2코린 12,7-10

[복음환호송] 루카 4, 18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르 6, 1-6

[성가]	8시 입당 329	11시 입당 329	봉헌 511	봉헌 511	성체 163	성체 177	파견 2	파견 2
---------------	-----------------	-----------------	-----------	-----------	-----------	-----------	---------	---------

전례 봉사

	7월 6일(화)	7월 7일(수)	7월 8일(목)	7월 9일(금)	7월 10일(토)	연중 제15주일(7월 11일)	
						8시 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정애리 스텔라	이명국 바오로
독서	이명국 바오로 이경란 베로니카	이진의 안젤라	이기자 요안나	이경란 베로니카	이명란 아녜스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한치용 요셉 한현자 헬레나
제의방	장희숙 루시아	허홍숙 세실리아	임은석 클라라	허홍숙 세실리아	장희숙 루시아	이선미 에스터	정진희 데레사 임은석 클라라

◆ 미사 이동 안내

7월 5일(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미사를 7월 6일(화)로 이동합니다.

◆ 성모신심미사

7월 10일(토) 오전 11시

◆ 봉성체 안내

7월 7일(수) : 알라메다, 7월 8일(목) : 리치몬드
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성당은 기도하는 집

성당 중앙 통로 앞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와 예수님 현존을 모시고 있는 감실이 있으며, 성당 중앙 통로는 전례 때(봉헌, 영성체)만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평상시에는 중앙 통로로 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성당 출입 시에 친교실 쪽 옆문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성당 정문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휴대전화를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아레 카타리나, 박종영 요한, 이윤지 소피아, 심데레사, 송성관 토마스, 부흥신 마티아, 강순배 수산나
* **공동체 기도 지향**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 전에 기도 신청자를 위하여 주모경 한 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례봉사자 교육

7월 10일(토) 미사 후 성당
* 모든 전례봉사자들(제의방 포함)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 하상회+청년회 모임 및 잔치

7월 11일 주일 미사 후 사제관 앞마당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대상 :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교우 및 이웃(종교나 인종에 관계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성당 홈페이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지역사회 이웃 돕기” 참조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구이오-이육아-칠공구사

◆ **멕시코 캄파체의 빈민촌 공소 설립**을 돕기 위하여 본당 선교부와 위원회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교실에 게시한 포스터를 참조해주시십시오.

◆ 레지오 마리아 주회합

매주일 9시 반 ~ 10시 반 각 회합실
꾸리아 월례회 :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106호실

7월 구역반 모임

1	오클랜드	7월18일(일)미사후	교육관 106호
4	캐스트로밸리	7월31일(토) 6시	이범준 요셉 맥
5	알바니	7월10일(토) 7시반	줌미팅

◆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읽기 공지 사항 후에 환경생태 분과장 이 마트로나 자매님께서 주보에 있는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 본당 대형 쓰레기통을 가정용 쓰레기통으로 교체했습니다. 본당에서 행사나 모임 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1년 2학기 성서사십주간 신청 안내

일정 : 8월 25일 개강 ~ 12월 15일 수료
시간 : 수요일 오후 7:30-9:30
교재비 및 수강료 : \$20 + \$50
문의 : 사무실/권마리크리스티나 수녀

◆ **반주자/성물방/이발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일 사무실**은 신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당 들어오시는 **입구 오른쪽 방**에서 업무를 봅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11시 30분부터 빗자루회에서 본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 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마스크 착용

오클랜드 교구에서 백신 접종한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신자분들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본당 실내에서 행해지는 미사, 전례, 회의,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종 안내

7월 3일(토) 아침에 박영실 데레사 자매님께서 선종 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사도예절 : 7월 11일(일) 오후 1시 반, 장의사
* 연도 : 7월 18일(일) 교중미사 후

◆ 감사합니다.

* 성당청소해주신 빗자루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안나요아킴회 잔치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본당에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책을 봉헌해 주신 이진의 안젤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대건안드레아(7/5) : 김명환, 임호영, 김갑영, 이덕용



제1장 더불어 사는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해설-교황청 보도자료)

제1장은 환경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발견을 피조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19항). 그래서 이 장은 “현재의 생태 위기의 여러 측면들” (15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염과 기후 변화 :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25항). 만약 “기후가 모든 이에게 속하고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라면” (23항), 가장 가난한 이들이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문제의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6항).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항).

물 문제 : 교황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인 기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맞갖은 생명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30항).

생물다양성의 감소 : “해마다 우리는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3항). 이것들은 그저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헌신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소중한 노력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여가 금융과 소비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 우리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욱 제한되고 음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34항).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 국제 관계 윤리의 틀 안에서 이 회칙은 “실제적인 ‘생태적 빛’” (51항)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특히 남반구에 대하여 북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대하는 데에 “차등적 책임” (52항)이 있으며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견해차를 인식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비극에 대한 “미약한 반응”에 깊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긍정적인 예들이 없지는 않지만(58항), “자기만족과 커다란 부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59항). 합당한 문화가 결여되어 있고(53항)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를 바꾸려는 의지도 없습니다(59항).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계를 분명히 정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수립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53항).

- 우리의 정성

< 주일헌금 >

< 교무금 >

김영자(7-8) 이육경(6) 김영민(6) 박종영(1-6) 조상호(2020, 1-5)
이상훈(7) 박호영(7) 이정연(7) 임윤택(7) 조진행(7) 김원덕(7)
김휘(4-6) 허수원(7) 허두근(6-7) 전윤자(7-8) 김영균(1-2)

< 성소후원금 >

임윤택(7) 조진행(7-8) 허두근(6-7)

< Bishop's Appeal >

김영민(6) 조진행(1-6)

< 감사헌금 >

임윤택, 허두근, 김영균

< 빈첸시오 후원 >

이육경, 이명란

< 우리의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7/4(일)	연	이마르코(재상)	이골롬바(정연)		생	송토마스(인환)	임비비안나(유지)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허라우렌시오(순구)	임비비안나(유지)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생	김카타리나(아레)	전수산나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김카타리나(아레)	임비비안나(유지)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홍세레나(상미)	홍토마스아퀴나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생	이아가다(윤자)	이요한(규호) 가족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이대건안드레아(덕용)	이요안나(기자)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7/6(화)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다윗(승우)	김유릿다(정희)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황마르코(문환)	황말찌나(정숙)		연	김막달레나(옥여)	이마트로나(은자)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아네스(순이)	이마트로나(은자)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생	이아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생	임대건안드레아(호영)	부모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이대건안드레아(덕용)	이요안나(기자)
	연	황프란치스코	가족	7/7(수)	연	정미카엘	가족
	연	황프란치스코	옥제노베파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윤레오(기창)	윤루카/루시아		생	김카타리나(아레)	전수산나
	연	최도밍고(근주)	최안드레아(용석)	7/8(목)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최헬레나(신경)	최안드레아(용석)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이요셉(건용)	임비비안나(유지)		생	김카타리나(아레)	임비비안나(유지)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생	김엘리사벳(영희)	이요한(규호) 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이요한(규호) 가족		생	이요한(규호)	김엘리사벳
	연	이프란치스코	이클라라(옥경)	7/9(금)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막달레나(옥여)	이마트로나(은자)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연	김아네스(순이)	이마트로나(은자)	7/10(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이마리아/부모형제	윤사비나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박데레사(영실)	익명		연	전안드레아/정아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박데레사(영실)	신율리엠타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염재호	이아네스(명란)		연	윤바오로(천호)	가족
	생	주임신부	임비비안나(유지)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생	정분다(정식)	찬미성가대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생	김요안나(만옥)	윤루카/루시아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박요한(중영)	박안나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생	박요한(중영)	신빈첸시오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생	박베드로(진영)	박마리아(덕희)		생	송베로니카	정안드레아(일양)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213) 368 - 90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